

분류	주일강단 1부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	롬8:31-39
일시	2024년 4월 14일
장소	성암교회
강사	정영신 목사 (정리: 김홍구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로마서 8:31-39)

롬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롬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롬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롬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독취 자료 ♣

서론)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신앙인들은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들도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응답이나, 거짓 응답이나는 것이다.

1. 기도응답 중의 최고 응답이 무엇인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기도가 되어진다. 응답을 받고 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속에 있는 것이 응답중의 최고 응답이다.

그런데 자꾸 잊어 버린다. 세상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꾸 잊어 버린다. 창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큰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는데 늘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한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인가?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다. 다니엘에게도 말씀한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바울에게도 말씀한다.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다. 살 여망이 없었

다고 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흔들릴 필요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헛갈리거나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3.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것이다.

전부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다.

4.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죄, 지옥 배경, 영적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근본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이다.

5. 지금까지 이유 없이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강대국이 되었다.

본론)

1.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속에 들어간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1)엡1:4-5,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기쁘신 일에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2)롬16:25-27,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됨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다.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다.

3)롬8:30,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거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4)요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교회 가야겠다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다.

5)사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흔들리는 것이다.

2.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롬8:31-39)

1)롬8:31절이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막을 수 있는가? 없는 것이다.

2) 롬8:32절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쏟게 하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에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는 것이다.

3) 롬8: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가? 고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다. 우리 죄인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누가 대통령의 말에 말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이다.

4) 롬8: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있다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편에서 변호하고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5) 롬8: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정점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끊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끊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6) 롬8: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것과도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완벽한 승리를 한다는 것이다.

7) 롬8: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다. 무엇을 확신하는가? 사망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망도 이기셨다. 세상에 높은 것을 다 동원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3. 하나님의 필연적인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약속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변계하신 적이 없다.

1) 지구상에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저주, 재앙, 영적문제, 사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누가 막겠는가?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끊어진다고 한다. 취소된다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의와 노력, 열심, 선행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누가 끊겠는가?

▶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하다.

▶ 이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이 축복이다.

진짜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쓸 수 없는 것이다. 믿는 자는 염려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안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안 알아준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바가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짜 가진 자는 알게 되는 것이다.

결론)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1)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바울이 받은 응답을 받아야 한다.

누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가 여기에 답대해야 한다.

2) 로마 복음화를 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받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

3) 로마에서 일어난 응답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한다.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이다.

▶ 아무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란다.

1) 선물중의 선물이- 복음이다.(엡2:8)(요3:16)

우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2)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롬 10:15)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 받은 것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것 더 감사한 것이다. 보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3) 전도보다 더 좋은 것이 전도자를 돕는 것이다. (롬 16장의 인물들)

전도자, 선교사를 돕는 것이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전도자를 돕는 자가 나온 것이다.

4) 복음 보다 앞선 것 없고 전도보다 급한 것 없다.

우리가 여기에 결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결론내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에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말할 일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방향,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방향, 목적이 여기에 맞추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바란다.